

# 쓰기 편하고 환금 쉬운 '강진사랑 상품권' 대박

### 44억원 어치 팔려...올 상반기 작년보다 43% 늘어

### 530개 가맹점에 할인액 3%는郡서 지원 큰 인기

강진군이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발행한 '강진사랑 상품권'이 44억원가량 팔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지자체 등이 발행하는 대부분 상품권의 판매가 저조한 것과 비교해서 놀라운 수치다.

강진군은 28일 "올 상반기 판매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할 만큼 성장세를 이뤘다. 이 상품권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정

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기비결은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은 점이다. 강진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가입 업소는 530개에 달한다.

또 상품권은 강진군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근 대도시 등에 빼앗긴 상권을 되찾아 침체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강진 지역 자급의 역의 유출을 예방하고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행한 오만원권, 일만원권, 오천원권 상품권은 농협마트, 식당, 주유소, 화원, 카센터 등 530여 가맹점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NH농협은행, 축협, 읍면농협에서 액면가 3%를 할인하고 있으며, 이 할인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환급수수료는 1%로 카드수수료 2~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쓰기 편하고, 팔기도 편한 장점이 있다.

또 취급 은행권에서 업소의 계좌에 당일 송금해 환급성 역시 뛰어나다. 일일 개인 구입한도를 50만원으로 규정해 상품권을

악용해 현금화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는 것도 강진사랑 상품권의 특징이다.

강진군에서도 각종 수당과 시상금 등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의 유통을 장려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 주민 누구나 쉽게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선물과 물품 구입시 강진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 영암군 서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성황

영암군은 28일 "영암농협 로컬푸드 참여농가와 함께 지난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높은 판매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직판행사에는 전통영양영암군수가 직거래장터를 직접 방문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단체간 우의를 다졌다.

무화과, 멜론 시식 행사와 함께 영암 대표브랜드인 달마지쌀 샘플할 배포를

통해 영암의 우수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판촉활동을 전개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생산한 2014년산 2kg, 4kg 단위 소포장 햅쌀과 영암산 황토 햇고구마를 소비자에게 첫선을 보였고, 서호면의 지원목장 곡수정 대표가 직접 참여해 신선한 수제요구르트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등 싱싱한 먹거리를 판매해 직거래장터를 찾은 많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장흥지역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장흥지역 어업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장흥군은 28일 "지난 26일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수산업과 어업인의 번영을 다짐하는 제8회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를 장흥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회장 최승일)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흥군 수산업 관련 주요 단체 500여명이 한데 모여 서로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단합된 힘과 역량으로 개방화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수산업 발전을 도모했다.

또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 가족, 수

협, 수산기술사업소 등 유관기관, 수성회, 김생산자협의회, 바다지킴이 등이 참석해 개회식 후 4개팀으로 나눠 피구, 단체줄넘기,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김성 장흥군수는 "고유가와 국제시장 개방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어업인 만남의 날을 통하여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상호 결속력을 다졌다"면서 "어업인의 자립역량을 키워 꿈과 희망이 있는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아빠와 함께...' 진행

영암군 지역아동센터는 28일 "최근 부모와 아동·청소년들의 친밀감과 관계 형성을 위해 '아빠와 함께해서 좋다!'를 주제로 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와 자녀간의 친밀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줬다.

영암군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3년 21차 아름다운 가게 정기수익 나눔을 통

해 아름다운 희망나눔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1년 동안 '아빠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아빠와 영화보기' '무화과 따기 체험' 행사 등을 진행했다.

또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성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장흥종합병원 행촌장학회

### 48명에 장학금 3000만원



장흥종합병원(원장김동국) 행촌장학회는 지난 27일 어려운 성적 우수학생 48명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촌장학회는 지난 2005년 김동국 원장의 선친인 고 김재현 박사의 유지에 따라 설립해 10년째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해마다 2회에 걸쳐 장흥 관내 699명의 학생에게 5억1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정자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자 선정도 투명하게 하고 있다.

장흥 지역 소년 소녀 가장, 재향군인회, 목회자, 군,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혜자를 찾고 있다.

김동국 원장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전개해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확대에 기여하겠다"면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아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지역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귀농사관학교의 풍물교실

지난 27일 강진군 칠량면 귀농사관학교에서 귀농인 30여명이 풍물을 배우고 있다. 이들 귀농인들은 원활한 농촌 적응을 위해 풍물패 '그라제'를 결성해 매주 풍물 연습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현대삼호重 자재대금 830억 추석전에 지급

## 협력업체 600개사 혜택

## 복지시설 위문품도 전달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이 추석을 맞아 지역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위해 자재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8일 "오는 9월 10일 결제 예정이던 자재대금을 5일가량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9월 5일 지급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귀향비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협력회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재대금 조기 지급으로 혜택을 받는 협력사는 600여 개 사, 금액으로는 830억 원 규모이며, 지난해 350여 개 사, 250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시설 29개소와 독거노인 15세대에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 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영암사랑

상품권도 3억 원가량 구매하는 등 지역과 상생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지역 조선업계는 공장가동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이지만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지역민들이 보다 행복한 추석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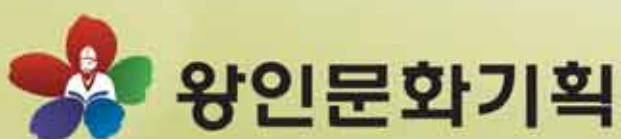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